

통합형 고등학교 도입 방안

I. 통합형 고교 도입의 필요성

(1) 통합형 고교 도입의 필요성

이 글에서 '통합형 고등학교'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나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그들의 진로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적절한 교육을 제공함은 물론 재학생의 진로 변경을 최대한 수용하여 학사를 관리하는 학교"를 의미한다. 이 학교는 재학중 학생의 진로 변경을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입학 당시부터 계열에 따라 학생을 배정하고 계열간 학생 이동이 매우 어려운 기존의 종합고교와는 큰 차이가 있다. 통합형 고등학교 도입의 필요성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통합 운영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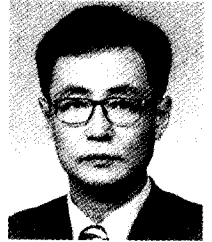
선진국가의 경제체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학습집약적 경제' (learning-intensive economy) 라고 할 수 있다(Stern 외, 1996). 이 체제 하에서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학습과 직무수행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게 된다. 이 경제체제는 기존의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적극적인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가의 정책상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교육과목과 일반교육과목의 통합적 운영에 주력하고 있다. 둘째, 학습 결과의 측정 기

준을 중심으로 교육제도와 자격제도의 연계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셋째, 직업과정의 학생은 물론 일반교육과정의 재학생들에게도 필수 과목의 설정 하에서 '현장중심의 학습' (work-based learning)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인문계 고교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추상적인 지식의 습득만을 강조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 한편 실업계 고교의 직업교육은 지나치게 구체적인 기술을 가르침으로써 현장의 급속하고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충분히 준비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고등학교 단계에서 일반계열과 실업계열을 구별하여 운영하는 교육체제는 미래 사회에 있어서 여러 측면에서 한계점을 갖게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한 학교 내에서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학교체제의 도입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정 대 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실업계 고교를 통합형 고교로 개편하여 한 학교 내에서 취업을 목표로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이 일반교과를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제공하고, 대학진학을 목표로 일반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최소한의 직업교과를 이수토록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통합형 고교는 장기적으로는 인문계 고교도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과 가치가 내재된 교육체제라고 할 수 있다.

나. 수요자를 중시하는 교육의 확대 필요

그간 국가경제 발전에 따른 가계(家計)의 경제력 향상으로 학부모들이 자녀를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시키고자 하는 희망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고교생 자신도 고등교육 졸업이 제공하는 금전적 비금전적 효과에 대한 기대로 고등교육 진학에 대한 욕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인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세에 따라 산업인력 전반의 질 향상 차원에서 고교생을 위한 고등교육 진학 기회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서 중학생을 중학교 성적에 따라 인문고와 실업고로 진로를 배정하고, 다시 실업고 안에서의 계열(공업→상업→농업)을 배정하는 공급자 위주의 학교 및 계열 배정 방식은 수요자의 학습권 내지는 학교 선택권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중학교 성적을 기본으로 학생의 희망과 의지에 상관없이 이들을 산업인력화 하려는 제도는 한계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제 학생 개인이 수학능력, 적성, 흥미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교육권을 신장시켜 주기 위한 학교체제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등학교 단계에서 진학과 취업이라는 진로

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대안의 하나가 통합형 고교의 도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진로선택 시기연장과 진로변경 수용의 필요성

기존의 실업계 고교는 중학교 졸업생들이 조기에 진로를 결정하여 고등학교 단계에서 산업인력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는 교육체제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많은 학생들이 취업보다 진학을 택하고 있어 조기 진로결정 체제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실업계 고교 제도 내에서는 진학 후에 가정환경의 변화나 학생자신의 관심의 변화에 따라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여도 그 요구가 수용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종합고교 내에서의 계열 이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동하고자 하는 계열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학습 결과를 요청하고 있는 관계로 실제 사례는 매우 적은 상황이다. 따라서 보다 탄력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학생의 진로 변경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조기 진로결정을 통해 직업교육을 강력하게 추진해 온 독일에서도 최근에는 정부가 조기 진로결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하우스프트슐레(Hauptschule), 레알슐레(Realschule), 김나지움(Gymnasium) 간에 학생 이동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일부 주에서는 한 학교내에서 진학과 취업 진로를 동시에 제공하는 종합학교(Gesamtschule)를 확대 운영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 후에 진로의 궤도수정을 가능하게 해

주는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통합형 고등학교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2) 외국의 동향

오래 전부터 종합 고등학교(comprehensive high school)를 고등학교의 주된 유형으로 운영해 온 미국은 연방정부가 1990년에 '퍼킨스법개정령'(Carl D. Perkins Vocational and Applied Technology Education Act)과 1994년에 '학교교육과 현장간 연계강화 법'(STWOA: School-to-Work Opportunities Act)을 제정하면서 고교 단계의 직업 교육과정에서 일반교과와 직업교과간의 '통합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을 강조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직업교육과정에서는 일반 교과(특히, 과학, 수학, 기술공학)의 교육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직업교육의 현장지향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학교중심 프로그램'(School-Based Program)과 '산업체중심 프로그램'(Job-Based Program)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수준의 직업교육과정과 전문대학의 교육과정 연계 운영을 위해 'Tech-prep 제도'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상급 학교 진학과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청소년 대상의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체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기초하여 산업체에서의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내용을 평가·인정해 주기 위한 도구로써 일반직업자격인 GNVQ(General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를 개발하여 청소년에게 취업능력을 제고시켜 주는 동시에 자격 취득

을 통한 상급 학교로의 진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GNVQ는 청소년에게 취업시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적인 직무수행능력의 습득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직업자격을 대학진학에 필요한 학력자격으로도 인정해 준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진다.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영국 내에서도 직업교육은 "제2의 최선 대책"(the second best)이라는 오명이 있어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종의 보상대책으로 이 자격 취득시에는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독일의 일부 주에서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와 유사한 '종합학교'(Gesamtschule)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원 체제'(dual system)가 지나치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만을 강조하여 급속하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반성이 일어나 이 제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일반 교과목의 학습을 강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대학진학 이전에 이원 체제에 참여하는 '김나지움'(Gymnasium) 학생의 숫자가 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 확연하였던 직업계열과 일반계열간의 경계가 변모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화크호크슐레'(Fachhochschule)의 졸업생이 이원 체제 졸업생의 직업을 잠식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원 체제 참여→자격취득→경력 축적→전문가로의 삶 영위' 공식이 무너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원 체제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대학진학시험인 '아비투어'(Abitur) 획득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와 유사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갖고 있는 일본도 이미 '80년대 말에 실업계 고교의 체제 개편을 경험하였다. 이 단계에서 일본이 추진

한 정책 중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총합과'(總合科)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 자원의 감소, 청소년의 경력개발 욕구 다양화, 실업계 고교의 매력도 상실 등에 직면한 일본의 농고, 공고, 상고 등 실업계 고교는 총합과 제도를 도입하면서 학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코스(course)로 제공하고, 학년제가 아닌 학점제를 도입하여 학생의 학습 속도를 배려하는 등 보다 매력적인 고등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총합과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15개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은 산업, 정보, 환경, 인간과학, 국제문화 등의 다양한 코스(course)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의 고등학교 개편 방향이 통합형 고교의 도입에 주는 시사점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 일반교과와 직업교과의 통합적 운영을 강조하고 있음에 비해, 영국은 자격과 학력의 연계 강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양 국가 공히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하여 청소년에게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이라는 두 진로 경로를 동시에 균형있게 제공해 주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사례가 제공 주는 시사점은 향후에 고등학교 단계에서 일반계와 실업계를 확연히 구분하여 운영하는 일은 여러 가지 한계점에 접하게 될 것이라는 점과 직업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도 고등교육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대까지 산업 고도화 정책에 따라 필요하였던 산업인력 공급 수단으로서의 실업계 고교 육성 단계에서 벗어나 직업세계의 다양화, 청소년

의 진로 개발 욕구 다양화, 중도 탈락 학생 사전 방지 대책의 필요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고등학교의 직업과정 재학생을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업계 고교생이 20% 이내로 감소한 일본의 현 상황에서 총합과의 운영은 우리 나라의 향후 고등학교 제도 개선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II. 통합형 고교의 도입 방향

(1) 통합형 고교의 운영 목표

통합형 고교의 정의를 근간으로 하여 통합형 고교의 운영 목표를 설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의 학생에게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할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

둘째, 재학중 학생이 진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수용하여 학사를 운영한다.

셋째, 학생의 능력, 적성, 관심사 등을 최대한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매력있는 학교'로 운영한다.

넷째, 개인주도적인 학습 풍토를 조성하고 학생 스스로가 미래 진로를 계획하도록 도와준다.

다섯째, 학교교육과 삶(직업생활)의 연계 강화를 추구한다.

여섯째,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여, 이론과 실체를 연계할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한다.

(2) 통합형 고교의 유형과 운영 원리

통합형 고교는 계열분리식 통합형 고교와 계열 통합식 통합형 고교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1) 참조). 후자는 종합고교(Comprehensive High School)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의 모형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전자는 우리의 상황에서 이 모형으로 발전하기 이전 단계에서 고등학교 체제의 큰 변화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 운영할 수 있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 제시한 두 가지 유형의 운영 원리와 발전 가능성 및 한계점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계열분리식 통합형 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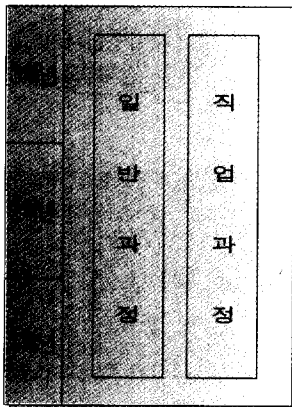
이 학교에서는 직업계열과 일반계열을 분리 운영한다. 그러나 입학생의 모집에서는 계열을 구분하지 않는다. 입학한 학생은 1학년 과정에는 공통 과목(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최대한 반영)을 이수하고 2-3학년 시기에는 구분된 계열 내에

서 심화과정을 이수한다. 2학년 진급시에는 학생의 성적보다는 적성, 능력, 관심사에 따라 계열을 배정하고, 3학년 진급시에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열 이동을 수용한다. 한편 2학년 진급후 학생이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대 계열 과목의 이수를 인정함으로써 '교과 교차이수 인정제도'를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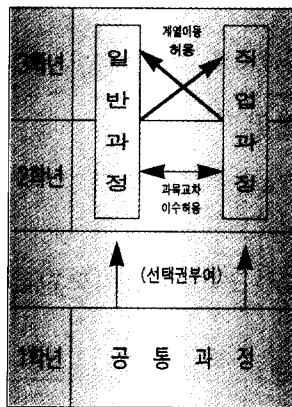
나. 계열통합식 통합형 고교

이 유형의 학교는 여러 선진국에서 미래를 지향하며 추구하고 있는 모형으로 고등학교 체제 개편의 과정에서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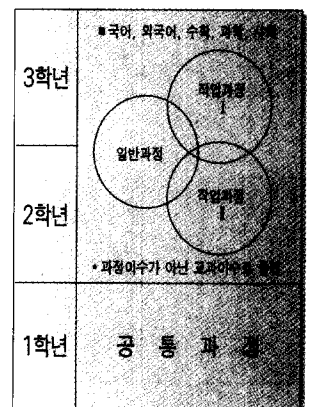
계열통합식 통합형 고교는 계열을 구분하지 않고 학생들이 다양한 과정(course)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이 체제 내에서 학생들은 계열이 아닌 코스 선택에 따라 학점을 이수한 후 졸업하게 된다. 따라서 이동식 수업이 필수 조건이 된다. 이 학교의 성공적인 운영 여부는 대학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균형있게 강조하는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에 크게 좌우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국가(영



(현존의 종합고교)



(계열분리식 통합형 고교)



(계열통합식 통합형 고교)

(그림1) 통합형 고교 운영 모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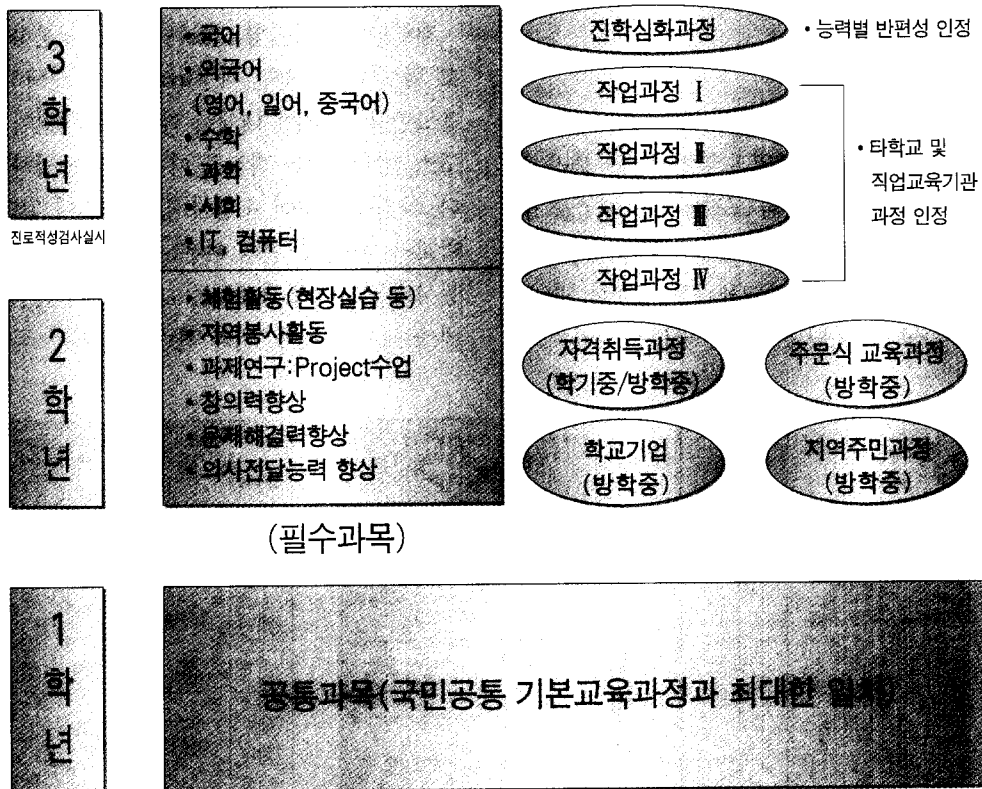
국, 미국 등)에서는 주요 교과(국어, 수학, 과학 등)에 있어서 '능력별 반편성'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종합고등학교에 대한 주된 비판의 하나인 '하향 평준화'에 대한 보완 대책인 동시에 대학 진학 희망자에 대한 배려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발전적 운영 모형

[그림 2]는 통합형 고교의 이념을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모형이다. 이

모형은 다소 계열통합형 유형에 초점을 맞춘 것이나, 일부의 운영 원리는 계열분리형 학교에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모형의 적용시 교육과정 운영 원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 편성 운영(과정 신설, 통합, 폐지)권을 갖는다.
- 계열을 분리하지 않고 교과 이수에 따라 졸업한다. 따라서 동료 학생이 어떤 진로를 준비하는지 잘 모르게 됨으로써 기존 종합고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림2) 통합형 고교의 이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모형

- 다양한 직업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과(전공)'가 아닌 과정으로 운영한다.
- 1학년에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원리를 따라 모든 학생이 공통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한다.
- 2학년 진급시에는 직업적성검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진로준비를 도와준다.
- 2·3학년에서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한다.
- 필수 과정의 인문 교과와 진학심화과정에서는 능력별 편성을 허용한다.
- 모든 학생이 직업준비 과정으로 운영되는 코스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 선택과정중 직업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인근 학교나 직업교육기관에서의 과정 이수를 허용한다. 이를 위해 학생 생활지도 전담교사 배치, 이동 원활화를 위한 통학 지원 대책 등을 수립한다.
- 선택과정중 직업교육과정의 다양한 개설 및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내에서 각 학교의 과정 개설을 조정하고, 학교 밖의 기관에서의 단위 이수를 허용한다. 아울러 향후 지역별 공동실습소에 과정 개설시 이 기관에서의 과정도 인정함으로써 당해 학교의 운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한다.
- 방과 후 혹은 방학 기간중에 학생이 교육과정 내의 교과와 유사한 학습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단위 이수로 인정한다. 인정 대상은 국가자격과 공인 민간자격의 취득 및 인정된 교육훈련기관의 우수 과정 이수로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당해 학교의 교장은 '학교 밖 학습 결과 인정 규칙'을 제정하여 학교밖 학습 내용과 학교 내 교과간의 인정기준을 설정한다.

(3) 통합형 고교 도입의 전제

가. 제도 추진 방향

첫째, 통합형 고교의 도입은 실업계 고교체제의 다양화 추구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실업계 고교가 기존 실업계 고교로서의 존속, 통합형 고교로의 개편, 특성화 고교로의 개편을 고려하면서 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하여 입시위주의 교육, 삶의 현실을 무시한 지식위주의 교육, 직업세계와 미래세계를 준비시켜 주지 않는 교육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고교교육 체제개편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통합형 고교는 2002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대입정책과 연계되는 학교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최근에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시험 성적의 반영을 최소화 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 결과를 중시하는 '대학입학생 선발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별 학생의 수능시험을 중심으로 타 학교 학생과 경쟁하는 환경에서 벗어나 내신성적을 중심으로 학교 내 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통합형 고교에서는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 타 학교 학생과 수능성적 경쟁 부담에서 벗어나 교내의 다양하고 삶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 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식위주의 교육보다는 체험교육 및 적성개발 교육을 강조하여 그 결과로 고교생에게 미래를 준비하고 삶과 연관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매력있는 고등학교'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통합형 고교의 재학생은 타 고등학교에 비해 대학 진학시 불리하지 않고, 취업에도 유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미래의 진로 준비 및 삶과 연계된 교육을 제공함은 물론 과거에 비해 매우 다양해진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신설 통합함에 있어서 융통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학교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는 통합형 고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요청되는 다음의 여건을 조성시켜 주기 위한 행정 재정 지원 대책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 ① 이동식 수업이 가능한 공간 확보 방안 및 예산 지원
- ② 다양한 현장중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과 운영 경비 지원
- ③ 이론과 실기의 통합교육과 학교와 일터의 연계 강화를 위한 교사의 교수·학습 자료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비용 지원
- ④ 선택과목 증가로 인한 교사 충원 예산 지원
- ⑤ 학생의 인근 학교 및 직업교육 기관 과정 참여 시 소요경비 지원
- ⑥ 과원교사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사 지원 대책의 수립

나. 지역별 적용과 적용 대상 학교의 선정

첫째, 지역별(도시/농 어촌)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요구를 파악하고 통합형 고교 체제의 도입에 대한 결정은 당해 학교의 의지에 따르도록 한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일부의 일반 고교도 통합형 고교로 개편 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지만,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실업계 고교를 우선 적용 대상으로 한다. 현재 농고의 재학생은 소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농·어촌의 상고와 공고, 그리고 중

합고등학교가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희망학교 적용 원칙'에 따라 실업계 고교가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고교 체제의 강제 적용을 지양하고 특성화 실고로 운영하도록 하거나 혹은 교육과정의 개편 추구를 유도한다.

셋째, 통합형 고교는 고등교육 진학열이 매우 높은 우리의 상황에서는 제도 정착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시범학교를 장기간 운영하도록 한다.

시범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예산 지원 및 법령 제 개정을 지원하고 참여 학교와 전문 연구기관은 '통합형 고교 시범운영위원회'(가칭)를 운영하며 매년 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수 사례를 보급함으로써 제도 발전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입학생 선발 및 재학생 관리

입학생 선발과 재학생의 관리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현재와 같이 학업능력이 낮은 학생을 거의 반강제로 실업고에 입학하게 하는 방식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통합형 고교의 도입은 학생의 진로 결정 시기를 '중학교 졸업시'에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계열분리형의 경우) 연장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음을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입학생의 선발은 원하는 모든 학생을 선발 기준 없이 최대한 수용하는 대책이나 실업고와 동일한 시기에 선발하는 대책을 고려할 수 있지만, 최종 방안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교육청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재학생의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실업계

고교와 일반계 고교생중 이 학교로의 전학 희망자를 적극 수용하고 이들을 위한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통합형 고교에서 타 고교로의 전학희망시에도 이를 허용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II. 결론

교육부가 통합형 고교의 도입을 발표한 이후에 학교 현장은 물론 다양한 유관 기관이나 단체들이 이에 관한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유관 기관(교육청, 실업계고교교장회, 직업교육관련학회, 경제단체 등) 대상의 의견 조사(1998. 7), 교육관계자(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 산업체관계자, 중3학생 등) 대상의 설문조사(1998. 8), 교육부 내부 정책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통합형 고교 도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부의 관계자들은 이 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한 충분하고 구체적인 이해 없이 제도 도입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발표자는 통합형 고교의 도입 방향 중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몇 가지 방향을 다시 강조하면서 결론에 같음하고자 한다.

첫째, 실업계 고교의 통합형 고교로의 전환은 실업계 고교 특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통합형 고교 도입 정책은 실업계 고교교육의 다양화 대책(특성화 고교, 특수목적고등학교, 기존의 실업계 고교, 공고 21체제)의 하나로 추진되어야 하며, 실업계 고교 전체를 개편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당해 학교의 선택이 중시되어야 하고, 장기간의 시범 운영

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교육부도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통합형 고교의 도입은 실업계 고교 전반의 문제 해결 대책이 될 수 없다. 통합형 고교의 도입은 실업계 고교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아니라 한 학교 내에서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융통성있는 학교를 운영하고, 재학중 학생의 진로 변경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수용하며,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통합적 운영을 시도하는 제도로서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통합형 고교의 도입은 가능한 한 많은 학생에게 기초적인 직업능력을 갖추게 하는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학교 내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직업세계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직업능력(문제해결력, 창의력, 정보활용능력, 자기학습능력, 실용외국어, 자기의사표현능력, 대인관계능력 등)을 필수과목으로 설정하여 가르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운영될 때, 통합형 고교는 인문교육 강화보다는 고교생 전반의 직업능력 향상을 추구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기능인력의 공급과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통합형 고교는 인문교육 강화와 기능인력 공급 부족의 문제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중요한 점은 제도 도입이 아니라 운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통합형 고교를 고교 전반에 확대 적용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인문계 고교와 실업계 고교가 통합형 고교 운영에 동시에 참여하는 일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 나라 교육체제 전반의 개편을 수반하므로 신중을 기해 장기적으로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실업계 고교 특성화 대책의 일환

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희망하는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인문계 고교의 참여도 부분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통합형 고교의 도입을 위해서는 교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급 대책이 최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 수급 대책은 최근에 인구감소로 인한 실업계 고교 입학생 감소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통합형 고교의 도입으로 인해 실업계 고교의 전문교과 교사의 감원 우려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 스스로가 장기적인 시범 운영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대상자의 규모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입학생 감소 문제가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실업계 고교의 입학생 감소 문제에 따른 과원교사 발생 문제와 통합형 고교 도입에 따른 과원교사 발생 가능성의 문제는 그 원인이 다르므로 별도의 접근 방식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적안은 실업계 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과원 교사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이며, 그 다음으로는 인문고와 다른 교사 배치 정책(산학협동 전담교사 배치, 실습지도 교사 증원 등)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고비용 모형인 통합형 고교의 재정 지원 확보 수단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것은 매우 무리한 일이다. 과거 종합고교의 부진은 제도의 실패라기보다는 충분한 지원부족의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학교의 교사들이 다양하고 매력있는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스스로 개발하고 적

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서구 국가에서 종합고등학교는 계층간 불평등의 문제, 즉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학교 유형(진학계열과 취업계열)이 결정되는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들 국가는 모든 청소년이 부모의 지위에 상관 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 사회가 추구하는 동등한 가치를 공유하도록 도와주는 평등 사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이 학교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제도로써의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합형 고교의 도입과 관련하여 어떤 사회 철학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제도 측면에서 한계점이 있더라도 서구 국가처럼 평등사회의 추구를 위해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제도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도입을 보류해야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무섭(1990). 미국의 종합고등학교 제도. 교육진흥 통권 8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강무섭 (1998). 21세기 서울시 고등학교 교육발전의 방향과 과제. 교육부
- 교육개혁위원회(1996).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Ⅱ).
- 교육부(1999). 2000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계획.
- 구자역 외(1998). 교육개혁 지역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무근(1995). 세계 직업교육의 동향과 한국 직업교육의 발전 방향. 직업교육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직업교육학회.
- 이무근(1999). 직업교육학 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 임형균(1997). "실업고로 왜 떠미나; 고입내신 비판 봇물." [조선일보]. 1997. 10. 24.
- 장석민.정태화(1998). "직업기술 교육". 교육 50년사. 교육부.
- 정태화(1996). "직업교육의 개혁과 실업계 고교교육의 발전 과제". 교육개혁의 절반은 직업교육이다. 시민포럼 16. 홍사단/교육민회.
- _____(1998). 선진국의 직업교육 개선 동향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창간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1998). 주요 교육통계의 미래 예측.
- 조선일보. 1997. 10. 7.
- 중앙일보. 1999. 2. 10.
- 한국교육신문. 1998. 3. 18.
- 한국일보. 1997. 8. 26.
- Hoerner, J. L & Wehrley, J. B.(1995). Work-Based Learning: The Key to School-to-Work Transition. Ohio: GLENCOE/McGraw-Hill.
- National Council for Vocational Qualification(1995). NVQ and GNVQ. London.
- Stern et al.(1994). School-Based Enterprise: Productive learning in American High Schools. San Francisco: Jossey-Bass.
- _____(1995). School to Work: Research on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Pennsylvania: The Falmer Press.
- Lynn, I. & Wills, J.(1994). School Lessons and Work Lessons. Pennsylvania: Institute for Educational Leadership. University of Pennsylvania.